

# 신문과 잡지가 발행되다

서양의 금서 이야기 — 16

주명철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17세기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는 지식인들이 문학이나 과학 잡지를 펴내 '말의 질서'와 '사물의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정기간행물의 성격을 띤 '인쇄된 정보'가 나왔다고 해서, '손으로 쓴 정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수기신문'은 18세기에도 여전히 중요한 매체였다. 유명한 계몽사상가들도 경우에 따라 큰 돈을 받고 편지 형식의 '수기신문'을 팔기도 했다.

서슬 시퍼런 박정희 정권시절, 어느 신문 식자공이 '공화당'을 '공산당'으로 잘못 판을 짰다가 크게 혼난 적이 있다고 한다. 그 뒤에는 이같은 실수를 막기 위해 '공화당' 세 글자를 한꺼번에 붙여서 인쇄했다. 17세기에도 이처럼 엄청난 실수를 한 인쇄업자가 있었다. 1631년 영국에서는 이른바 '사악한 성경책' (Wicked Bible)이 나왔다. 이 책에서는 십계명 가운데 일곱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You shall not kill)가 "살인하라" (You shall kill)로 바뀌었던 것이다. 이 책은 1천부가 발간됐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모두 찾아내서 폐기처분했기 때문에 오늘날은 아주 희귀하다. 물론 인쇄업자는 엄청난 벌을 받았다.

## 17세기 들어 출현한 신문과 잡지

이처럼 웃지 못할 일화를 통해 금서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금서는 대부분, 아니 전부가 우연의 산물이다. 반드시 금서가 돼야 할 책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리고 한때 금서였다 할지라도 시대가 변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별 탈 없이 나오는 책 가운데 금서로 분류된 책보다 훨씬 더 심한 내용의 책도 많지 않은가? 1970년대 남자의 머리카락이나 여자의 치마 길이를 자로 재던 때가 생각난

다. 박정희 정권은 자기가 보기 싫은 것을 제멋대로 바꾸려 했다. 그러나 그것이 필연인가? 최규하 국무총리가 단속하던 장발은 깎아도 다시 자랐다. 깎는 것이 필연이라기보다, 자라는 것이 필연이다. 생명은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힘인 것이다.

오늘날 정보화시대가 열렸다고들 말한다. 이 말은 인류역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정보의 생산과 소비가 활발해지고, 더욱이 민주화된 관계 속에서 누구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음을 뜻한다. 정보가 종이에 담겨 다량으로 널리 퍼지는 동시에, 전파에 실리거나, 전화선을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다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정보를 통제하는 일이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의 통제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제 는 비밀이 아니듯이, 미국은 군사위성과 통신 위성, 그리고 슈퍼컴퓨터를 한데 묶은 전자첩보용 '에셀론'을 활용해 유무선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낚아채고 있다(《한겨레21》 301호, 2000년 3월 30일).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오늘날만이 정보의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 모든 시대는 저마다 정보

를 생산하고 수집하고 통제하는 독특한 방식을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정보를 퍼뜨리는 속도와 범위가 오늘날에는 엄청나게 빠르고 넓어졌을 뿐이다. 17세기는 서양에서 신문잡지 형태의 인쇄물이 처음 나타난 때였다. 인쇄술이 15세기 중엽 대대적으로 보급된 이후, 소책자, 포스터, 민요, 싸구려 책, 연감 같은 인쇄물이 종교나 정치적 '온도'와 상관없이 꾸준히 늘어났고, 때로는 그 '온도'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기도 했다.

이같은 인쇄물에 뿌리를 두고 17세기부터 신문과 잡지가 발간되기 시작했다. 다양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발간했기 때문에, 신문과 잡지는 곧 식자층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 서양 최초의 학술 월간지 《학계소식》

유럽에서 최초는 아니라 해도, 초기의 신문을 꼽자면, 안트워프의 인쇄업자 아브라함 베어후벤이 1605년 5월 말에 발간한 《새로운 일간지》(Nieuwe Tydinghen)가 있다. 이 신문은 초기에는 때를 정해 놓지 않고 나왔지만, 1617년부터는 한주에 한번씩 꼭 나왔다. 그리고 1622년부터 다음 해 사이에는 한주에 세번까지 나왔다. 크기는 8절판 (11×16cm)이었으며, 한 호의 분량은 8쪽에서 16쪽이었다. 때로는 인물 초상과 회화를 삽화로 넣은 이 신문의 값은 2수였으며, 발행인 베어후벤은 외국에 통신원까지 두고 있었다.

1609년에는 스트라스부르에서 정기간행물의 모습을 완전히 갖춘 주간지가 나왔다. 안트워프의 선배보다 가로, 세로 모두 1cm씩 큰 이 잡지의 첫호는 8쪽 분량이었으며, 오늘날 하이텔베르크에 보존돼 있다. 스위스에서는 주간지가 1610년, 영국에서는 1622년 4절판의 《주간 소식》(Weekly News)이 나왔다.

학술적 성격을 띤 잡지 가운데 최초의 것은 독일 지방에서 나왔다. 함부르크의 신학자이며 시인인 요한 리스트는 《토론을 선도하기 위한

월간지)《Erbauliche Monats-Unterredungen》)를 1663년부터 5년간 발간했다. 그 뒤를 이어 1665년에 프랑스에서는 드니 드 살로가 발간한 《학계소식》(Journal des Savants), 영국의 《왕립학회 보고서》(Philosophical Transactions)가 나왔다. 이탈리아에서는 성직자이며 학자인 프란체스코 나차리가 1668년에 《문학저널》(Giornale de letterati)을 내놓았다. 라이프치히에서는 1682년에 《라이프치히 사람들》(Lipsiensium), 홀란드에서는 프랑스에서 망명한 피에르 베일이 1684년 《문학공화국소식》(Nouvelles de la Republique des Lettres)을 발간했다.

이렇듯, 17세기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는 지식인들이 문학이나 과학 잡지를 내놓아 '말의 질서'와 '사물의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다. 주요 잡지에서는 중요한 신간서적을 요약해 놓았다. 이상의 학술잡지 가운데, 최초의 월간지는 명이 짧았지만, 《학계소식》은 1665년 이래 1792년까지 계속 발간됐고, 1797년에 잠시 부활해 12호를 발간하고 멈췄다가, 1812년에 되살아났다. 이 잡지는 원래 주간지로 출발했으며, 1792년에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정간됐다. 이 잡지의 편집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파리 시장 바이이가 몰락한 뒤의 일이다. 잡지에서 종교나 국가 체제를 건드리지 않는 한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던 시대에, 《학계소식》의 운명은 결국 정치적으로 결정됐던 것이다.

#### 금서를 유통시킨 서적행상인

이렇게 정기간행물의 성격을 띤 '인쇄된 정보'가 팔리고 있었다고 해서, '손으로 쓴 정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수기신문'(nouvelles la main)은 18세기에도 중요한 '매체' 노릇을 했다. 유명한 계몽사상가들은 저마다 통신원과 정보를 교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큰 돈을 받고 편지 형식의 '수기신문'을 팔았던 것이다. 또한 '인쇄된 정보' 가운데, 신문의 전신이라 할 만한 것이 15세기말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미 시사문제, 큰 관심을 끌 만한 소식을 알리고, 찾았다. 그러나 그것은 정기적으로 나오지 않고, 가끔 나왔기 때문에 이름도 '부정기적인 신문'이라는 뜻으로 《오카지오넬》이라고 불렸다. 《오카지오넬》은 실제 일어난 사건뿐만 아니라, 상상 속의 사건도 다뤘다. 거기에는 왕의 즉위식, 군주의 화려한 입성식, 군사원정, 왕의 장례식, 유성의 출현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오카지오넬》의 다음 단계로서 상상의 이야기를 주로 담은 《카나르》가 나왔다. 《카나르》의 경우는 내용뿐만 아니라 삽화에서도 더욱 상상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것은 《오카지오넬》보다 삽화를 실는 예가 훨씬 많다. 전체의 4분의 1이 그림을 실고 있다. 그림의 내용은 괴물·기적·홍수 따위로, 《오카지오넬》에 실린 왕의 장례식, 군사원정, 입성식 따위와 근본적으로 달랐다. 사실 그림의 내용

이 반드시 글과 일치할 필요는 없었다. 그림은 글을 좀더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만이었던 것이다. 인쇄업자들은 한번 이용했던 목판을 다음에 다시 이용하기도 했다. 1576년, 쿠바에 나타난 괴물 뱀은 1579년 파리 하늘을 날고 있는 용이 됐던 것이다. 《카나르》의 성격을 보여주는 제목을 몇 가지 예로 들면, "리용 시에서 죽은 지 24시간 뒤 성모의 중개로 되살아난 아이의 몸에서 볼 수 있는 기적"(1619), "귀부인과 남자 하인이 권총 한 자루를 가지고 차례로 죽은 가슴아픈 이야기"(1608), "헝거리의 생-조르르 시 하늘에 다시금 나타난 기적에 관한 잊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

치안당국은 이런 이야기가 별로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파리는 물론 그 밖의 대도시에서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서적행상인만이 《카나르》를 취급한 사람은 아니었다. 리용·퐁블리·몽펠리에 같은 도시에서는 소매상인이나 음악행상인도 이런 인쇄물을 팔았다. 여기서 음악행상인이란 노래를 직접 부르면서 가사를 파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돈을 버는 일이면 무엇이든 했다. 자기가 파는 상품의 내용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돈을 벌 수 있으면 팔았던 것이다. 치안당국은 이들의 상품 속에서 금서를 발견하고 추궁했지만, 이들 가운데에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버젓이 파는 경우가 많았다. 설사,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금서를 판다고 해서 무슨 잘못이라! 위험한 일이긴 해도, 먹고사는 일이 더 준엄한 현실인 것을... ●